

“구름아! 쿠키야! 어떻게 나온 거야!”

구름이와 쿠키

구름
이와
쿠키

글·그림 김은미



글·그림
김은미



작가의 턴장

작가의 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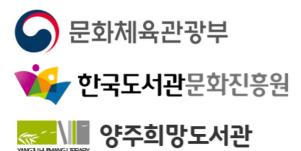
작가의 말



8살 고양이 구름이 6살 강아지 쿠키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1단
그림책이 좋아서

지은이 김은미
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발행
펴낸곳 양주희망도서관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78-47



제작 (주) 작가의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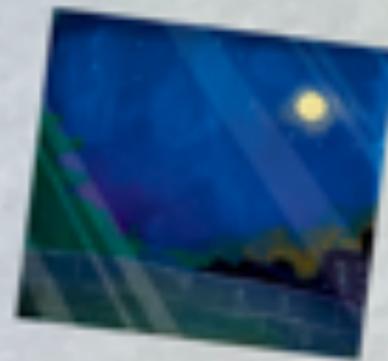
[비]매품]

- *본 도서는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1관 1단」사업에 선정되어 발간하였습니다.
-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에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구름이와 쿠키

글·그림 김은미





안녕? 난 구름이야.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8살 된 고양이야.
물고기 장난감을 좋아하고
생쥐 잡기 놀이도 좋아해.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밖을 바라봐.
하지만 나가본 적은 없어.

이 강아지는 쿠키야.
나랑 같이 사는 내 친구야.
쿠키는 매일 매일 산책을 해.
매일 동네를 돌며
자기 구역을 지켜야 한 데.
그리고 산책에서 돌아오면
내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줘.
매일 매일 말이야.





“구름아~
나 오늘 민들레 꽃밭에서 응가 하다가
벌에 쏘였어. 엄청 아팠어.”

“아프겠다...
근데 이거 하얀 거는 뭐야? 털 같아.”

“민들레 씨앗들이야.
민들레 씨앗을 툭 치면 씨앗들이 하늘로 날아가.
엄청 재미있어.”

“씨앗이 날아가? 궁금해.”

“응. 근데 다른 친구들을 만났는데
비 피할 곳이 없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인사할래?

“구름아~
산책하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왔어.”
“콱 - 다 젖었어!”

달팽이, 나비, 무당벌레, 진딧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사마귀, 개미 친구들이야.”

“아… 안… 네?”



An illustration of a vibrant autumn forest floor. Two mice are the central figures: one is a small, fluffy white mouse with large ears, and the other is a larger, brown mouse wearing a red collar. They are surrounded by a carpet of fallen leaves in shades of orange, yellow, and red. In the background, there are dark evergreen trees and some bare branches. The overall atmosphere is warm and playful.

“구름아~

나 낙엽 동산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았어.

엄청 재밌고 신났어.

이렇게 둉굴 둉굴 하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

진짜 재밌어.”

“재밌겠다. 나도 둉굴 둉굴 해볼래.”



“구름아~
밖에 눈이 와! 너무 신나!
엄청나게 신나서 막 뛰어다녔어.
눈은 차갑고 폭신해.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먹어 봤는데
눈이 혀에 닿으면 금방 사라져. 신기해.”

“궁금해. 나도 먹어 보고 싶어.”



오늘도 주인은 나갔나 봐.

그런데 쿠키는 같이 안 나가는 것 같아.



문을 한참 바라보던 쿠키는
문손잡이를 잡고 내렸어.

잡고 내리고,
또 잡고 내리고,
또 또 잡고 내리고,
그리고

나갔어!









“구름아! 쿠키야! 어떻게 나온 거야!”

주인이 돌아왔어.

“세상에! 문이 열려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문을 잘 안 닫고 나갔나?

큰일 날 뻔했네.”

주인이 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용기 낸 나의 첫 모험은 이렇게 끝났어.

하지만 다시 용기 내 볼 거야.

쿠키랑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